

금융포용 향상을 위한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Utilizing Alternative Credit Data to Improve Financial Inclusion

김 원 신*, 이 성 엽**

WonShin Kim, SeongYeob Lee

본 연구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가 금융포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포용에 대해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정책 및 관련 시장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주요내용은 금융포용의 국내외 현상을 이해하고, 금융포용을 위한 비금융 대안정보의 활용에 있어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데이터 경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기존 전통적인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에서, 비금융데이터인 SNS활동, 휴대전화 사용 데이터, 온라인 거래 기록 등을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로 변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가 가능해 졌다. 결과적으로 대안신용평가는 금융포용을 향상시키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법규제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 보완을 통해 보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대안신용평가 개발 및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금융포용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색인어: 금융포용, 비금융 대안정보, 대안신용평가, 개인신용평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30104, B030501, B030502, B030400, B030908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wshj0104@naver.com), 제1저자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dysylee@korea.ac.kr), 교신저자

논문 투고일: 2024. 10. 9, 논문 최종 수정일: 2024. 11. 14, 논문 게재 확정일: 2024. 11. 22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로 금융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혁신적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진입을 통해 전통적 금융사들과 경쟁과 협업을 지속하면서 성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은 자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축적한 다량의 고객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 충성 고객그룹의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금융사와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 금융회사들도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각 개별사별로 업무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신속한 거래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지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금융시장에서 사용하던 전통적인 데이터 외에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이력이 부족한 금융소외 계층까지 포용하면서 금융서비스 장벽을 낮추고 있다.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¹⁾은 개인과 기업이 각각의 필요에 맞게 금융거래, 결제, 저축, 신용 및 보험 등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포용의 국제적 논의는 이미 2010년부터 시작되어 55개 이상의 국가가 금융 포용을 약속했으며, 60개 이상의 국가가 국가 전략을 시작했거나 개발 중에 있다.²⁾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인류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채택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금융포용을 중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G20도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포용 액션플랜(FIAP: Financial Inclusion

1) WorldBank(2022). Financial inclusion means that individuals and businesses have access to useful and affordabl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their needs - transactions, payments, savings, credit and insurance - delivered in a responsible and sustainable way

2) <https://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overview>

Action Plan)'을 인준하였으며, 해당 액션플랜에 따라 금융포용 파트너십(GPFI³⁾)이 구성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포용이 금융발전의 필수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⁴⁾ 금융정책당국에서도 중요 정책목표로 삼으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추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금융포용성 촉진에 있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가 중요한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이하 ACSS)은 그간 전통적 신용평가모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비금융데이터(SNS 활동, 통신사 이용, 온라인 거래 기록 등)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이용 기록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World Bank(2022)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14억5)명에 이르는 인구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은 주로 저소득, 여성, 영세 상인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더욱 디지털 금융의 확대를 통한 금융포용의 증진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이전에 현금기반의 금융거래에서 소외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수백만 명의 가난한 고객으로 하여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케냐, 미얀마 등의 개발도상국가에서 금융포용의 사례가 잘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성인 대부분이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 이용률도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접근성 제고 측면으로 금융포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측면의 금융포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이후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시대에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신용평가가 금융포용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GPFI: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4) 변혜원(2019)

5) World Bank의 Global Findex 2021(금융포용 데이터베이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금융포용의 개념과 국제적 흐름 및 동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로는 오수현·임한나·이경선(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금융포용에 대한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현황 및 동향을 연구하였으며 미얀마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포용 사업에 대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KOICA 포용적 금융전략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로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금융포용 관련 전체적 흐름과 정책제시에 한계를 가진다.

반면, 금융회사가 금융포용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수행 방안에 대해 조사한 연구로는 송호준·천성용(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들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구현 사례를 Allianz, Metlife, M-PESA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금융포용 활동으로 평가받는 사례들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알리안츠는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 및 금융교육에 주력하였고 메트라이프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했다. 이론적 측면으로는 금융소외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과적 공유가치창출 수단으로 금융포용 활동을 분석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가 저소득층 대상의 금융포용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본 연구가 디지털 금융과 연관 지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가 금융포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대안신용평가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 이슈를 다룬 연구로는 최성민(202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법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시 원칙적으로 추가동의 없이 활용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검증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다룸으로써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즉, 대안신용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안신용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정원훈·이재순(2023)은 SNS사용특성, 대출특성, 개인특성이 신용대출 상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SNS와 같은 주관적 비금융 데이터가 신용평가모형에 적용 가능하고 유의성이 있음을 밝혔다. SNS사용량과 프로필 사진과 같이 전통적 신용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은 변수들을 활용하여 신용대출 상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금융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여 금융이력부족층⁶⁾(Thin-Filer: 썬파일러, 이하 썬파일러)이 신용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가 이러한 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금융포용 향상 측면까지 강조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이력부족층(Thin-Filer: 썬파일러) 및 금융소외계층 대상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에 따르는 법적 쟁점을 다루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금융포용의 향상과 디지털 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금융포용의 국내외 현상 및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제 III 장은 금융포용을 위한 비금융 대안정보의 활용 사례를 해외와 국내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 IV 장에서는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의 법적·정책적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법제도 현황을 짚어보고, 이어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해 다루겠다. 마지막 제 V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와 법적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금융포용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금융포용의 국제적 현상 및 국내 정책

1. 금융포용의 국제적 현상

가. G20와 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금융포용은 2009년부터 국제적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G20에서 지속적으로 금융포용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는 금융

6) 금융이력부족층(Thin-Filer: 썬파일러)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실적 등의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은 금융고객을 의미함

포용을 개발의제(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에 포함시키고 구체적 이행을 위해 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을 출범시켰다.⁷⁾ <표 1>과 같이 G20 혁신적 금융포용 원칙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경험 공유, 관련 금융 교육, 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하였다.

<표 1> G20 Principles for Innovation Financial Inclusion

항목	내용
리더십	금융포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육성함
다양성	지속가능한 금융접근 및 예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접근이 지속가능하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기반 인센티브 제공 정책 구현
혁신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확대를 위해 기술적, 제도적 혁신 제고
보호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포괄적 접근 필요(소비자, 공급자, 정부)
역량강화	금융 이해력 및 금융 능력 향상
협력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및 정부, 기업, 그 외 시장 참여자 간 협업 장려
지식	고도화된 데이터 활용 통한 검증 'test and learn'을 통한 정책적 접근 필요
비례성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는 기존 규제장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관련 risk와 benefits에 연동한 정책 및 규제 체계 구축
규제체계	국제 표준 및 국내 상황을 반영한 규제체계는 경쟁환경,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함

자료: G20(2010), 저자 재구성

G20은 리더십, 다양성, 혁신, 협력, 지식, 규제체계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금융포용 확대에 영향이 있는 원칙인 반면, 보호, 역량강화, 비례성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⁹⁾

특히, 2024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는 금융포용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G20은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다.¹⁰⁾

7) 오수현·임한나·이경선(2017)

8) <https://www.gpfi.org/publications/g20-2023-financial-inclusion-action-plan>

9) G20 Financial Inclusion Experts Group-ATISG Report, 2010.5.25.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나.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금융 포용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17개¹¹⁾로 나누고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정한 국제적인 목표이다. 2015년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 목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하에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포용은 직접적으로 정한 SDGs 17개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 목표별로 금융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 포용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¹²⁾ 금융포용의 개념은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SDGs 목표 전반에 걸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포용이 잘 구현되면 빈곤, 기아,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디지털 금융포용에 대한 논의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활용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금융소외(digital financial exclus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소외의 개념에 디지털화에 따른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외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현금 및 디지털 접근성 확대,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금융사기 예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¹³⁾

11) SDGs 17개 목표: 빈곤종식,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청정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불평등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정의와 제도, SDGs를 위한 파트너십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sustainable-development-goals>

12) 오수현·임한나·이경선(2017)

13) 정지수(2024)

3. 국내 금융포용 동향과 정책

가. 서민금융 지원 정책

우리 정부 역시 금융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정책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저금리 금융상품을 제공했고, 2016년에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나. 금융소외계층 지원

2018년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하나로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고 "1)서민의 금융 부담 완화, 2)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 3)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4)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¹⁴⁾ 또한,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금융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서비스 활성화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에 대한 애로사항을 완화한다는 정책으로, P2P플랫폼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금융채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 데이터3법 시행과 대안신용평가

2020년 데이터3법¹⁵⁾이 시행되면서 데이터 활용, 결합이 용이해지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포용 구현이 가능해졌다. 그간 중·저신용자가 기존 은행에서의 대출이 어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1.25. www.fsc.go.kr/no010101

15)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려워 고금리 대부업으로 유입되는 금융시장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데이터시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금리가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이다. 대안신용평가는 기존의 전통적 금융정보를 통해 신용을 평가해 오던 방식을 탈피하게 되었는데 이는 데이터3법의 시행으로 가능해졌다.

Ⅲ. 금융포용을 위한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 사례

1. 비금융 대안정보와 대안신용평가 개념

전통적 신용평가모형은 일반적으로 금융거래 이력정보와 통계적 이론을 바탕으로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 기법이다. 그러나, 비금융정보가 결합된 새로운 모형의 신용평가 방식이 도입되는데,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발되는 대안신용평가는 투입되는 데이터의 특성과 평가 프로세스 측면에서 기존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시성과 정확성, 평가대상의 행동 관련성 등을 갖추고 주로 빅테크,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머신러닝, AI 기술, 자체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신용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전통적 방식의 신용평가모형이 대부분의 금융기관 이용이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라면,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데이터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신용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통적 신용데이터와 대안신용데이터를 비교하면 <그림1>과 같다. 이처럼 비금융 데이터는 차주의 거래정보에서 행동습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대안신용평가 모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1〉 전통적 신용데이터 vs 대안 신용데이터

Traditional Credit Data		Alternative Credit Data
-Tradelines Credit card Auto loan Mortgage -Credit inquiry -Bankruptcy	↔	-Alternative financial service data -Rental payments -Asset ownership -Utility payments -Full file public records -Consumer permissioned data

자료 : Experian(2018), What is Alternative Credit Data?
<https://www.experian.com/blogs/insights/what-is-alternative-credit-data/>

즉, 대안신용평가는 대체정보로 불리는 통신, 전기가스요금 납부이력, 온라인 구매정보, SNS활동정보, 모바일 데이터, 건강등급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 금융정보만으로 신용평가 제도를 운영해 오던 전통적 금융기관의 평가 방식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도 파악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안신용평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금융소외계층’, ‘금융이력부족층(Thin-Filer: 썬파일러)’ 등 축적된 금융정보가 부족하여 기존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평가 결과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던 계층들에 대해 포용이 가능한 평가기법으로 등장하게 된다.

대안신용평가는 디지털 기술발달로 인한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 풍부한 데이터를 가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CSS(Credit Scoring System)가 고도화되면서 대안신용평가모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2. 해외 적용 사례

가. 중국의 Mybank

중국은 전자상거래 및 사업주의 개인 신용거래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안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WeLab 및 Mybank가 대표적인 사례다.¹⁶⁾ Mybank의 주요 대상 고객층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를 이용하는 온라인 공급업체와 앤트그룹의 Alipay 사용자로,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Mybank와 같이 중국의 민영 인터넷 기업 산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핀테크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자사에서 취득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통적 국유은행에 편향된 사업 환경을 극복하려 하였다. 이러한 혁신 노력은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하면서 전통적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평가다.¹⁷⁾

나. 미국의 Lending Club

미국의 경우는 전통은행에 비하여 규제강도가 낮은 플랫폼 기반의 P2P사업 중심으로 대안신용평가 시장이 확대되었다. 미국은 P2P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규제가 없어 기존 연방 및 주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기업대출(commercial loan)만을 취급할 경우에는 당국의 인허가 없이도 가능하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시장이 확대되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Lending Club을 들 수 있다. Lending Club은 최초의 P2P, 개인 간 대출기관이자 미국 핀테크 회사이다. 약 150여개의 대표적인 변수들을 활용하고 머신러닝 예측모델을 통해 개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였고,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와 대안정보(기업의 형태, 거래정보, 고용정보 등)를 결합하여 대출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금융이력 부족자들이 혜택을 받는 결과를 보였으며, 2020년 Radius Bank를 인수하면서 종합금융사로 발전했다.¹⁸⁾

다. 남미의 Mercado Libre(메르카도 리브레)¹⁹⁾

Mercado Libre(메르카도 리브레)는 남미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기반의 중남미 최대 이커머스 및 핀테크 기업이다. 동 회사는 1999년 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되어 중

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2), www.hanaif.re.kr/boardDetail.do?hmpeSeqNo=35277

17) 이은영(2018)

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2),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endingClub>

19) Mercado Libre는 스페인어로 '자유시장'이라는 뜻

남미 18개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쇼핑물, 금융결제사업을 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2023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61.4%를 기록하였으며, 뉴욕 증시에 상장하여 주가상승도 이어가고 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온라인 소매업과 핀테크 사업을 동시에 하며 2018년 출시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메르카도 파고’를 통해 은행계좌가 없는 수백만 남미인을 금융시스템에 합류시키는 금융포용을 실현했다.²⁰⁾

Mercado Libre는 자체 플랫폼에서 이커머스를 수행하는 판매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미 자체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통해 개발한 평가모형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었다. 온라인 회원수 1억 2천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내부등급을 구분하여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위험도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여 대출을 해준다. 내부등급 방식이 기존 CB에 비해 손해를 덜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신용평가방식으로 분류된 고위험군이 내부등급방식 신용평가를 통해 일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금융포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체 보유한 고객의 비금융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대출에 적용하여 금융소외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금융포용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 국내 적용사례

World Bank²¹⁾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95%가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 금융포용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이러한 금융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금융과 비금융을 접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비금융 대안정보는 데이터 3법 시행(2020.8)이후 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풍부한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

20) 메르카도 리브레 홈페이지 <https://www.mercadolibre.com>

21) World Bank(2017), p.124,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and Fintech Revolution.

금융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새로운 금융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 졌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CSS가 비금융 대안신용평가 모형의 주요 경쟁력이 되었다.

가. 빅테크기업의 대안신용평가: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스코어

네이버페이는 2024년 대안신용평가 '네이버페이 스코어'를 개발하여 제휴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케이뱅크, SBI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네이버페이 스코어를 개인신용 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네이버페이 스코어는 기존 신용정보와 약 7,300만건의 가명 결합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네이버페이와 NICE평가정보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해당 대안신용평가모형에 활용된 비금융 데이터는 네이버페이 이용 내역,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산 데이터 등으로 소비활동의 규칙성과 지속성, 꾸준한 투자활동 등의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정보와 결합하고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갖는다. 사업자일 경우 거래액, 배송 및 문의 응답 속도, 리뷰, 예약건수 등 스마트스토어 및 스마트플레이스 관련 데이터도 활용하고 있다. NICE평가정보가 보유한 신용정보와 네이버페이 비금융 정보를 결합한 일명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존 신용평가모델보다 이자 절감 등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출을 시작으로 보험, 카드, 예적금 영역까지 순차 적용을 시도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²²⁾

2020년부터 시작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역시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하여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영업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 적격 등의 신용평가에 있어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하여 '23.3분기 기준 대출총액은 누적 2,300억 원을 기록하였다. 기존 금융권 거래력이 부족한 썬파일러도 매출 등 스마트스토어 판매실적을 고려해 자금을 내어주었다는 점에서 금융포용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안신용평가에서 '포지티브 방식(긍정적 접근)'과 '네거티브 방식(부정적 접근)'은 신용평가 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접근법을 의미하는 것²³⁾으로, 이는 대안신용평가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금융포용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포지티브 방식(긍정적 접

22) 네이버 홈페이지

23)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연구팀(2021), pp.3-8.

근)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썬파일러에게 금융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 기록이 부족한 고객에게도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썬파일러의 신용도를 대안 데이터를 통해 평가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점수가 낮거나 없는 고객이라도 실제 상황 능력이 있거나 신용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썬파일러의 잠재적인 신용을 확인하고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네거티브 방식(부정적 접근)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썬파일러가 금융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디메리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썬파일러의 부정적인 신용 요소를 강조하거나 이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인 비금융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AI,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²⁴⁾)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포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접근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대안신용평가 모형이 썬파일러 또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금융포용의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빅테크기업들은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신용점수를 보완하고 평가등급에 맞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성장과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안신용평가의 모형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안신용평가의 활용 취지와 목적이 보다 더 명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모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시장참여자 간 약속이 필요하다.

24) ACSS: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나. 비금융전문CB: 크레파스솔루션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2020.8.5.)되면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 도입되었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개인신용평가업에 포함되나 비금융정보만을 처리하여 정보주체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비금융전문CB라고도 하는데 크레파스솔루션이라는 대안신용평가회사가 비금융전문CB로서 국내1호 금융위 본허가(‘21.12)를 득하였다. 크레파스솔루션은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 신용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학적 정성평가 모델 개발을 통해 다차원 신용평가를 제공한다는 사업구도를 밝혔다. 크레파스솔루션은 비금융전문CB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금융사, 통신사 등의 많은 업체와 협력하고 지정대리인 또는 국책과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2019년 P2P서비스 ‘청년5.5’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년을 위한 대출상품도 마련하여 제공하기도 했다. 청년대상의 중금리 소액대출 상품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해야 했을 청년층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그 결과 연체가 거의 없었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에도 적극성을 보였는데, 신한카드와 카자흐스탄 대안신용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2023년에는 과테말라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을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가 비금융데이터를 통한 금융확산 기회가 효과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높아, 크레파스솔루션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시 카자흐스탄, 과테말라,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통신데이터활용: 통신대안평가주식회사

통신대안평가는 대한민국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의 국내 최초 합작법인이다. 통신 3사를 비롯해 SGI서울보증과 코리아크레딧뷰로 총 5개사가 2022년 8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쉐파일리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설립되었다. 2024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본인가를 획득하면서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서비스를 시

작하였다. 약 4,700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안신용평가 모델 'TelcoCB(텔코CB)'를 개발하였고 현재는 '이퀄(EQUAL)'로 변경하여 브랜딩을 시작했다. 해당 대안신용평가서비스는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요금납부 현황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주부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 약 1,290만 명에게 금융시스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크레파스솔루션이나 통신대안평가사는 비금융전문CB로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비금융정보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조항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효과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교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의 결합이 필수적인데 해당 조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활용이 제한을 받고 있어 현재 비금융전문CB사는 금융기관 등과의 개별 협약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일부 활용하여 가명결합 및 분석을 통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포용의 향상과 대안CB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때 비금융전문CB사에도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는 금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온라인플랫폼기반 P2P금융: 핀테크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2023년 금융위원회의 '23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에도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투자연계 플랫폼인 어니스트펀드(P2P대출)는 연체 위험 등 리스크는 낮으면서 대출수요는 높은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통신·카드 등 다양한 비금융 대안정보를 기존 금융정보와 함께 분석하였다. 워크스톤파트너스(온라인투자연계업, 중소기업인대출) 역시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산업별 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우량 개인사업자를 추가 발굴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중소기업인 유형별 신용평가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안신용평가로 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

이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앞서 미국의 렌딩클럽(Lending Club)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기반으로 P2P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출한도, 기준 등이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되고 있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P2P금융은 제도권 내에서 영위하게 되었으며, 중·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금융시장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금리를,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였으나 관련 촘촘한 규제와 불경기 등의 시장상황이 겹쳐 산업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마. 건강등급대안신용평가: 그레이드헬스체인

2019년 5월 설립된 인수어테크 기업인 그레이드헬스체인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건강등급을 분류하였는데, 대출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신용등급처럼, 건강등급은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사고의 발생률을 측정해 등급을 나누는 것이다. 동의 기반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개발한 건강등급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보험사를 통해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헬스케어서비스나 금융기관 대출심사에도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보험청구와 대출연체 간 상관관계를 활용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원의 실손보험금 청구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손보험 청구 이력과 신용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씬파일러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 개선 시 신용평점 개선 등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모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비금융정보인 건강등급이 대안신용평가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이동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의 납부를 통한 가점처럼 건강한 사람에게 금리를 낮추어 주는 방식의 형태로 구성하여 건강관리가 금융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의 법적·정책적 과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신용평가 모델은 비전통적 데이터 소스(예: 소셜미디어 활동, 모바일 폰 사용 데이터, 온라인 거래 기록 등)를 활용하여 신용 기록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개인들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신용평가 모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안신용평가는 금융소외층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시성, 포용가능성 측면에서 기존의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하면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향상에 중요한 시스템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은 기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금융정보부족자 혹은 중소기업 등의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그룹에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아울러 금융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제Ⅳ장에서는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과 연관되어 있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등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ACSS의 고도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4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비금융데이터 결합활용 관련 주요 법제도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데이터3법 시행(‘20.8.5.)에 따른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포용 확산에 전환점을 제시하였다. 신용정보법 제32조는 금융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용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썬파일러도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 대안적 신용평가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이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3법이 정비되면서 신용정보법과 함께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법과 법제도의 균형성을 갖추면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전면적으로 개정(2023.3)을 하면서 그간 타법과의 충돌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등의 기업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국내 P2P시장은 2006년 도입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그와 동시에 투자자 피해와 시장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면서 2019년 P2P대출중개업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 이하 온투업법)인데, 이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이하 온투업)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여 포용금융을 확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을 두고 있다. 온투업법의 본격 시행 이후,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대한 중금리 대출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비금융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등급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는 온투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데이터를 통해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금융데이터 활용범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

2020년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따

르면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비금융CB)'의 허가단위를 별도로 두고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개인신용평가업에 포함되나 비금융정보만을 처리하여 정보주체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하는 업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인 비금융정보만을 사용하여 평가모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소 자본금 5억으로 핀테크 등 소규모업체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2)참조).

크레파스솔루션, 통신대안평가사 등 비금융CB는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씬파일러의 신용도 개선과 금융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신용평가모형에 있어 비금융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제한적으로 금융정보를 결합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 하지만 전통적 금융정보가 아닌 법제도상 수집이 가능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개인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것만으로도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진입요건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달리했다는 측면에서 비금융CB로 허가를 받은 회사가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안신용평가의 활성화와 핀테크기업의 성장, 나아가 금융포용의 실현 측면에서 비금융CB사에 금융정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비금융정보와 기존 금융정보의 결합을 통해 고도화된 대안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해당 규제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 법 하위규정에서 검토하여 데이터 활용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제한적 금융정보 활용을 허용해 준다면 신용평가의 정확성 개선 및 다양한 대안CB 상품 개발이 촉진되어 결국 금융포용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금융권 자금 공급,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업신용평가업(이하 기업CB)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으로 구분되며,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으로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업무단위별로 5억~2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CB는 개인CB와 달리 산업별, 규모별, 성장단계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재무평가의 획일적 신용평가 모형을 벗어나 새롭고 고도화된 모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기업CB업을 세분화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평가이지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²⁵⁾가 적용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비교하며 동일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2024년 9월, 금융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제에 대해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없으며,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입법예고 2024.9.4.~10.14).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 등을 다량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용이해지면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분류 및 진입요건 현황

허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개인CB	50억 원	적용(지분을 50% 이상)
	비금융전문CB	5억 원/20억 원	배제
개인사업자CB		50억 원	적용(지분을 50% 이상)
기업 CB	기업정보조회업	5억 원	배제
	기업신용등급제공업	20억 원	적용(지분을 50% 이상) → 배제
	기술신용평가업	20억 원	적용(지분을 50% 이상)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eer-to-Peer lending, P2P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고 해당 연계대출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52개사로, 이용자는 약 10만 명이고 연계대출 잔액은 1조 1,000억 원 수준이다²⁶⁾. P2P금융(온투업)은 핀테크 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 기반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신용평가

25)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모형은 비즈니스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의 금융 포용성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투업에 있어 ACSS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지난 2024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하였다.

온투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건전성 규제, 대출심사, 대출규제 적용상의 제도적 충돌 등으로 사실상 실행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온투업 투자 수요를 갖고 있음에도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었는데, 온투업체의 ACSS평가를 통해 혁신성을 평가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소하여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한해 기관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온투업에 진입하면 신용평가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기관투자자와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보유한 온투업자 간 협업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온투업체가 개발한 ACSS가 중·저신용자를 포용할 수 있는지, 연체율을 낮출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 대부업으로 운영되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포용을 증진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향후 시장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온투업 모든 상품에 대해 기관투자가 허용되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그레이드헬스체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듯이, 헬스케어서비스 핀테크기업들은 수집가능한 헬스빅데이터와 헬스분석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데이터를 생성, 이를 대안신용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등급은 대안신용평가의 일반적 항목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 의료정보가 개인의 보호가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활용에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권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명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인질병이력 노출에 대한 우려, 이를 부정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소방안으로 다각적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통해,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이 대표적 사례이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 보호장치를 철저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집·결합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건강데이터가 대안데이터로서 금융과 결합하여 금융소외층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해질 것이다. 일부 이해관계자의 불신과 우려로 데이터 활용이 더디게 된다면 금융포용 구현도 지연될 뿐이다. 법제도하에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위규정을 폭넓게 해석하고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을 통해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라. 금융포용 구현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용에 대한 자율규제 정립

대안신용평가는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에서 배제되었던 금융소외계층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이다. 비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비금융정보로 구축된 ACSS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구현하느냐가 핵심요소일 것이다. 비전통적 데이터 소스인 소셜미디어 활동, 모바일 폰 사용 데이터, 공공요금 납부실적, 온라인 거래 기록 등 방대한 비금융정보가 자칫 부정적 데이터로 양산되어 오히려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금융소외계층의 불이익 해소라는 궁극적 취지를 벗어나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이는 결국 대안신용평가라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신뢰도 측면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포용의 구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사후 검증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소비가 피해 입을 수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향의 보호방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해 본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ACSS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오로지 포지티브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관련하여 금융·비금융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증분석과 검증을 반복하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향상된 ACSS를 위해서는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형태의 조치를 통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의 결과가 평가대상인 개인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유리한 경우에만 산출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제안한다.

정보 활용의 편익과 정보보호의 이익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규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 통제기준을 준용하여 신용평가의 행위준칙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혹은 조금 더 규제성이 있는 대안신용평가 활용 가이드마련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의 구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평가모형 투명성, 설명가능성, 데이터 출처의 신뢰성 등이 포함된다면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면서도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강화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V. 결론

금융포용은 국제적 논의가 심화될수록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 간의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중요 정책목표로 꾸준히 추진되어오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포용수준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고금리 대출, 싼파일러 등 금융소외의 구조적인 측면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은 이들을 포용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으며 이종데이터의 결합·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고도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앞서 국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 내에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AI,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신용평가모델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의 전통적 금융정보를 통한 신용평가보다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CSS(Credit Scoring System)로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조를 감안한다면 대안데이터의 정교성과 확

장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제도인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금융데이터 활용범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그리고 금융포용 구현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용에 대한 자율규제 정립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우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진입이 가능해진 비금융전문CB업에 대해 금융정보의 결합·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상 기업CB의 진입규제 합리화(금융회사 50% 출자요건)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부분 확대 등은 ACSS 고도화를 위한 여건 마련과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이를 통해 중·저 신용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데이터 생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결합·활용은 사익추구가 아닌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금융포용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필요하며, 관련법 체계 내 하위규정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비금융정보의 부정적 활용 방지를 위한 시장 내 자율적인 규제방안인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자율적 보호조치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는 경제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금융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포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다만, 금융포용과 ACSS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측정과 금융포용에 대한 실제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이번 연구의 한계다. 금융포용 관련 지표화, 지수화를 통해 실현성에 대한 직관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대안신용평가가 금융포용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차후 연구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구(2022),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 판단 방법-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헌법학연구 제28권제1호, 한국헌법학회, pp.279-308.
- 고환경·주성환(20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102권, pp.34-52.
- 구본성(2021),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KIF금융 분석리포트 2021권제2호, pp.1-64.
- 권영준·남재현·조민정(2011), “개인신용평가에서의 비금융정보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9권제2호, pp.81-107.
- 김경하(2020), “모바일 머니(Mobile Money)가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에 미치는 영향 분석: 케냐, 나이로비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0 국제지역연구 제24권1호., pp.253-274.
- 김영알·조만박·수진 외 1명(2023), “비금융 대안정보의 신용리스크 예측에 미치는 효과: 미시데이터 기반의 실증분석과 이의 시사점”, 금융정보연구 제12권제2호, pp.1-30.
- 김재민(2023), “신(新)신용정보산업 동향: 개인 및 개인사업자CB, 마이데이터, 데이터전 문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1, pp.1-7.
- 김준영·전보마·박지영(2020), “금융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개정 신용정보법 하에서의 변화”,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2020-1, pp.1-16.
- 김종윤·장원중·김광용(2019), “온라인 상거래 데이터를 반영한 개인신용평가모형(커머스 스코어)개발”,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제16권제1호, pp. 45-55.
- 김종희(2018), “금융포용의 질적 요인의 확대가 소득 불균형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금융지식연구 제16권제2호, pp.87-128.
- 박소정(2024), “디지털 금융이해력(Digital Financial Literacy)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1, pp.1-99.
- 박재만(2020), “비금융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

34권제3호, pp.331-360.

변혜원(2019), “해외금융포용 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 469권 pp.10-18.

배영임(2022), “기술혁신 관점의 포용적 성장 정책 연구: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2-07, pp.1-101.

송채원·김홍수(2021), “Fintech Score: 핀테크 서비스 데이터가 개인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제18권제3호, pp. 239-253.

송호준·천성용(2017),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활동을 통한 금융회사의 차별화 사례 연구”,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0권제1호, pp.91-124.

오수현·임한나·이경선(2017),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1-94.

윤상용·강만수(2017),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역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0권제4호, pp.1,257-1,274.

이병관(2023),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포용 상의 과제”, KIF주간금융브리프 제32권제11호, pp.30-32.

이병윤·서정호(2021),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KIF 정책분석보고서 2021-3 pp.1-142.

이성엽(2019), “개인정보의 개념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2권제2호, pp.190-208.

이성엽·계인국(202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공법학회 제50권 제2호, pp.145-169.

이은영(2018), “중국의 포용적 금융정책과 주요 은행 사례분석”, 산은조사월보 제746호, pp.3-33.

이정은(2019), “미국 및 영국 P2P 대출중개업 규제가 주는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9-17호, pp.1-5.

정지수(2024), “디지털 금융소의 현상에 대한 글로벌 움직임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4-18호, pp.1-6.

- 정원훈·이재순(2023), "SNS 사용특성, 대출특성, 개인특성이 신용대출 상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8권제5호, pp.77-90.
- 최성민(2023), "공개된 개인정보의 신용평가 활용과 법적 쟁점", 금융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pp.35-73.
- 투이컨설팅(2020), "대안 신용평가 국내외 동향과 추진 전략", 투이컨설팅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2), "대안신용평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나Knowledge 2022-22, pp.1-13.
- 한국금융연구원(2014),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KIF금융분석리포트 2014-5, pp.1-36.
-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연구팀(2021), 네이버 테크핀 리포트 20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자료 데이터3법, <https://www.korea.kr/>
- 글로벌이코노믹, "[기자수첩] 온투업 규제 완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2024.2.4.
- 더벨, "그레이트헬스체인, 인슈어테크 넘어 데이터회사로," 2024.04.26
- 연합뉴스, "'통신데이터로 신용평가' 텔코CB, 금융위 본인가 획득," 2024.4.19
- 조선일보, "아마존을 꿈쩍 못하게 하는 '남미의 아마존'은 어떤 회사," 2023.11.09.
- Erik Dolson, Julapa Jagtiani(2023), "Which Lenders are More Likely to Reach Out to Underserved Consumers: Banks Versus Fintechs Versus Other Nonbanks?," Sage Journals
- Experian(2024), "2023 State of Alternative Credit Data Report", pp.1-9.
- G20(2010), "Innovate Financial Inclusion", G20 Financial Inclusion Experts Group-ATISG Report pp.1-59.
- G Cornelli;J Frost;L Gambacorta;J Jatiani(2024), "The impact of fintech lending on credit access for us small businesses",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GPFI Home, <https://www.gpfi.org>

IMF(2020), "Fintech Credit Risk Assessment for SMEs: Evidence from China"

LexisNexis(2023), "2023 Alternative Credit Data Impact Report"

McKinsey&Company(2023), "What is financial inclusion?"

Rangarajan Committee(2008),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ial Inclusion, Government of India"

World Bank, Financial Inclusion Home,
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

World Bank(2017),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and Fintech Revolution"

大和総研(2023), "金融デジタル化は金融包摂につながるか"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systems to promote financial inclusion through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ACSS)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recent trends in financial inclusion in the global context and domestic policies and market trends are reviewed. Specifically, the main research subjects include understand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henomena of financial inclusion, analyzing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alternative credit data for financial inclusion.

The research show that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shifts from traditional model of Credit Scoring System(CSS) to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ACSS) using non-traditional data sources (e.g., social media behaviors, mobile phone data, and purchase history records in online marketplaces), which helps people who have insufficient credit history to create their credit score.

Consequently, ACSS is identified as a key competitive advantage in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Additionally,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re necessar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a number of fintech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ACSS, thereby further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 **Key words:** Financial Inclusion, Alternative Credit Data, Alternative Credit Scoring, Personal Credit Scoring